

ESG 교육·실천 시행계획 수립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로 추진… 생태전환 교육 확대·탄소 저감 실천 등 담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ESG 교육 및 실천 시행계획을 수립, 올해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교육'을 비전으로 자연과의 공존(E), 사회적 책임(S), 윤리적 경영(G)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실천할 방침이다.

중점과제로는 △생태전환 교육 확대

및 탄소 저감 실천(E)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협력(S)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 및 투명 경영 실천(G) 등을 설정했다.

생태전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환경 교육, 이야기와 함께하는 전북 생태역사 탐방, 종이 없는 회의, 음식물류 폐기물 제로화, 저탄소 환경급식, 자원봉사의 날·청렴의 날 운영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

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탄소 저감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각종 행사?회의의 시 1회용품 사용 실태 및 에너지 절감 이행 점검을 의무화하고,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더불어 ESG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업무포털 팝업존을 활용한 쇼츠 영

상 홍보, 카드뉴스 제작, SNS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ESG 실천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ESG 실천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과 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아 ESG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임대승 이리공업고 교장과 문형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이 '2025 인터배터리' 국내 기업체 관계자에게 학교의 준비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서 교육감 “전북교육 대전환 결심 맺어야”

전략회의서… “올 연말, 전북교육 대전환 시작한 지 3년 6개월”

새학기 맞아 “개별 학교의 어려움·학생 안전 등 직접 점검해야”

“이제는 '전북교육 대전환'에 대한 결심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10일 열린 전략회의에서 “올해는 결심을 맺어야 할 때인 만큼 각 부서는 지난해 경영계획 발표를 토대로 정책 사업의 목표가 뚜

렷한지,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은 명확한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올 연말이면 전북교육 대전환을 시작한 지 3년 6개월이 되는데, 도민과 학부모들은 '그동안 어떤 변화를

이뤘느냐', '어떤 결심을 맺었느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육감은 “새 학기가 시작됐다”며 “교육장들께서는 관내 학교를 찾아 개별 학교의 어려움을 무엇인지,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사들에 대한 교육 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직접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빅데이터팀 신설… 교육행정 데이터 관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빅데이터팀을 신설, 정책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1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자로 정책기획과에 신설된 빅데이터팀은 교육데이터통합플랫폼(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산된 교육행정 데이터를 통합·관리한다.

이 시스템은 나이스, K-에듀파인, 교

육통계, 평생통계, 학교정보공시, 진로 교육현황 등 다양한 교육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교육부, 시도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일부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오는 5월부터는 각급 학교와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데이터를 정책 수립이나 의사결정 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교육행정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올해를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추진 원년으로 삼아 정책 기획 단계부터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며 “이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모든 교육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유아교육진흥원, 반부패 청렴 자정결의대회 개최

법과 원칙 준수 등 결의문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강혜정)은 지난 6~7일 전직원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청렴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반부패 청렴 자정결의대회는 유아교육진흥원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다지고, 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자정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부당 요구나 지시 금지 △특혜 제공 금지 △갑질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자정결의대회 참석한 직원들은 '청렴 GO, 부패 STOP' 등의 청렴 슬로건을 외치며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을 통해 청렴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했다. 또한 유아교육진흥원 행동강령 책임관(총무과장 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은 지난 6~7일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청렴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철)의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통한 전문적 청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2025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ESG 실천을 위한 환경보호 활

동을 펼쳤다.

강혜정 원장은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여 교육가족 및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2025학년도 입학식 개최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지난 8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융합대학은 전북 지역 일반대학 최초의 성인학습자 친화적 단과대학으로, 이날 입학식은 지역의 성인학습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박진배 총장과 한동승 미래융합대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각 학과장 및 교직원 소개, 신입생 및 재학생 대표 인사 및 남·여 신입생 대표 선서가 이어졌다.

박진배 총장은 환영사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을 통해 전주대학교의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미래융합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직업 역량을 갖춘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현재 2개 학부(미네르바학부, 로컬벤처학부)와 4개 학과(농식품경영학과, 창업경영금융학과, 반려동물학과, 친환경자동차학과)로 운영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K-미래인재대학

2025학년도 신입생 맞아

호원대학교 K-미래인재대학은 지난 8일 5동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성인학습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희망찬 출발을 알렸다.

입학식 후에는 '호원 K-미인 STUDY SHOP' 행사를 통해 K-미래인재대학 학습환경 적응을 돕기 위한 대학생활 안내,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소개, 학과 교수와의 만남, 캠퍼스 투어 등이 이뤄졌다.

강희성 총장은 환영사에서 “실사구시형 인재를 양성해 명실상부한 취업중심 대학으로 발전해 온 호원대학교는 신입생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형 K-미래인재대학장(K-푸드창업학과장)은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성인학습자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자기주도적인 삶을 실현해 나가고, 또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석사 2년 만에 세계가 주목’

전북대 진주영 연구원, 연구성과 탁월

암모니아 센서에서 고온·고비용 한계 극복



전북대학교 유연인쇄전자 전문대학원 진주영 연구원(2025년 2월 석사과정 수료, 지도교수 김태욱)이 석사과정 2년 만에 연이어 성과를 내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0일 전북대에 따르면 진 연구원은 석사과정 2년 동안 주저자로 참여한 논문 2편을 국제 저명 학술지에 잇따라 게재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다공성 브롬화구리(CuBr)를 이용한 고감도 암모니아(NH3) 가스 센서 연구가 센서 분야 세계적인 권위지인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IF:8.0, 상위 0.7%)와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에 게재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연구팀은 저온에서도 간단한 용액 공정으로 제작 가능한 다공성 구리브롬화물(CuBr) 필름을 개발한 것.

실내 온도에서도 미세 농도의 암모니아 가스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고, 플라스틱과 같은 유연한 소재 위에서도 작동 가능해 웨어러블 전자기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반경 2mm 수준으로 1,000회 이상 반복해서 구부리는 실험을 한 결과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진 연구원은 이 기술을 응용해 차세대 메모리 소자로 활용 가능한 이원계 할라이드(CuBr) 기반 소자의 스위칭 특성을 발견하고, 저항 변화 메커니즘을 제시한 연구 논문을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IF : 5.8, 상위 8.3 %)에 게재했다.

이 연구는 CuBr 기반 저항 스위칭 메모리의 저항을 변화시키는 주요 인자가 '구리 이온'임을 처음 밝힌 것으로, 저항 스위칭 기술의 상용화뿐만 아니라 뉴로모픽 회로 개발 및 센서 내 컴퓨팅 기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태욱 지도교수는 “석사과정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연속적으로 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진 연구원의 연구 역량과 열정은 앞으로 차세대 센서 및 메모리 소자 분야 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주영 연구원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의료 진단,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관심과 교수님의 열정적인 지도 덕분에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의 연구가 미래형 전자기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원도심학교 맞춤 지원 확대

전북교육청, 도심 속 작은학교 공동통학구 신설 등 여건 개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도심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 및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1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원도심학교는 전주 27개교(초 18, 중 9), 군산 12개교(초 11, 중 1), 익산 13개교(초 11, 중 2) 등 총 52개교다.

최근 3년간 원도심학교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율이 12.9%로 전체 시·군·구 초등학교 평균 감소율 9.1%보다 높았다.

더군다나 원도심학교 중 50%인 26개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에 해당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분야 및 체험활동,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도 절실한 실정이다.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북교육청은 올해 원도심학교 운영 학교 수를 52개교로 늘리고, 재정 지원을 1교당 평균 3,200여만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편성

기준을 완화했다. 동 지역 일반 학교 학급당 기준인원은 27명이지만 원도심 학교는 25명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도심 속 작은 학교(원도심학교) 공동통학구'도 신설했다. 학생수 감소율이 심화되고 있는 원도심 학교와 주변 큰 학교(동일 행정동)를 공동통학구로 설정해 작은 학교로의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올해 운영학교는 전주팔복초등학교(전주조촌초등학교)와 미룡초등학교(군산용문초등학교), 이리남창초등학교(이리서초등학교)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원도심학교가 교육격차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원도심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우석대, 3년 연속… 학위과정 등의 국제화 역량 강화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3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0일 우석대에 따르면 이번 인증 평가에서 필수지표인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율과 핵심지표인 △국제화 사업계획·인프라 △학생선발 및 입학 적절성 △유학생지원 △유학생 관리 등을 충족해 인증을 받게 됐다. 우석대학교는 2023년과 2024년에도 IEQAS 인증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인증대학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과 외국 정부 등 국내외에 공개돼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 선택 시 공신력 있는 정보로 활용되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획득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 심사 기준 완화와 절차 간소화,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 등을 받는다.

박노준 총장은 “우리 대학교가 3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선정된 것은 대학의 국제화 노력과 우수한 국제화 인프라가 결실을 본 결과”라며 “이번 인증을 통해 우리 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는 물론, 국내 학생들에게도 더 나은 국제적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과정의 국제화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